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 1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놓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 3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 4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1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 2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맘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 3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 능히 끊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 담당

6/10(화)	6/11(수)	6/12(목)	6/13(금)	6/14(토)	6/16(월)
강협수 안수집사	조진권 재적안수집사	한상열 안수집사	김종진 안수집사	김두연 안수집사	이윤식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성숙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96장
기도	김종진 안수집사
성경봉독	히브리서 3:1~6
찬양	주를 보네
설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90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3:1~6>

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3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
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5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
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 그리스도는 하나
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
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5년 6월 13일(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펼쳐주시는 새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순간 깊이 생각하고 주목함으로 만나는 모든 유혹과 시련 앞에서 믿음 지켜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내심을 받아 그 사명 감당하신 주님처럼 저희 또한 주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라질 이 땅에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주가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문안 공동체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제직들의 헌신과 수고로 새문안교회가 든든히 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각 부서에서 성실하게 소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고 간절한 기도 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선한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중독과 동성애, 이단 등 죄악으로 어두운 이 땅에 바른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시고 국민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정직과 겸손함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을 살피주시고 억압 속에 있는 북한 땅에 주의 평화와 참 자유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